

로컬리더스

군산경찰서 형사팀, 우수팀 선정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형사팀이 2분기 전북지방청 15개 경찰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올려 우수팀으로 선발됐다.

이와 관련 형사팀 박철수 경위가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 받는 영예를 안았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해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개월에 걸쳐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온 네이트 폭력 피의자를 검거하고 6월에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문자 폭행을 일삼은 몽골국적의 조현형 환자를 강제출국시키는 등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폭행 등 2분기동안 형사팀 228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88명을 검거했다.

김동봉 서장은 "우수 형사팀으로 선정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군산경찰서 전체의 영광"이라며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민생침해 사범 및 삶의 터전을 짓밟는 범죄 근원에 앞장서서 범죄에는 강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군산경찰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보건소, 쫘까가무시증주의 당부

군산보건소는 쫘까가무시증을 옮기는 털 진드기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9~11월)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쫘까가무시증은 진드기에 물린 뒤 잠복기가 1~3주인 점을 고려하면 9~11월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쫘까가무시증, 신증후출혈열, 렘프소피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풀숲에 눕지 말아야 한다.

또 야외에서 일할 때에는 장갑, 장화, 긴 옷 등 보호장구 착용, 야외 활동 후 즉시 옷 세탁 및 샤워를 하는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염병 군산시보건소장은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진드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형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에 김동수 도시가스회장 추대

군산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에 김동수(사진) 군산도시가스(주) 회장이 선출됐다.

군산상공회의소는 20일 군산리조트 자호관에서 제22대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총 64명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수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김동수 회장은 군산도시가스(주)와 (주)동유, (주)참과에 회장을 역임하면서, 법무부 법사법위원회 군산·익산지역연합회 회장,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전북대표, 수시탐포럼 의장을 맡고 있다.

김동수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상공업계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 기업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어울어져 경쟁력 있는 군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몸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내일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익산시는 오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 촉진하기 캠페인을 펼친다.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9월19일~23일까지 친환경교통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일 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22일에는 시청 분청 주차장에 자가용 출입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교통주간 행사로 영동2동 주민센터~롯데마트 후문에서 오후 2시~4시까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한다.

/익산=정양원기자

김제시 주장 "새만금의 날 지정 가능"

“사실 무근” 파문 예상

새만금 개발청 "의견 제시한 바 없어"

김제시가 주장한 "새만금의 날 지정 가능"이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과 다르다는 새만금개발청의 해명보도자료가 발표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새만금 개발청은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김제시의 새만금의 날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새만금의 날 지정은 가능하다"란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개발청은 오히려 김제시의 새만금의 날 지정 관련 조례안에 대해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위상과 주변 지자체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조례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 12일 김제시에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새만금개발청의 발표에 군산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까지 새만금의 날을 지정 하려는 김제시의 행정추진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제시가 주장하는 군산시의 오식도동을 새만금등으로 명칭 변경 하려 했다는 주장도 오식도동 주민이 오식도동이 아직도 섬으로 인식되어 불편을 겪자 동사무소에 개명을 건의 하였고 검토단계에서 그친 사안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식도초등학교의 새만금초등학교로의 교명개칭도 군산시와 무관한 교육기관 소관인데 마치 군산시가 추진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추진기관 파악조차 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자체간 분쟁만 유발하는 김제시의 일방적 행정추진"을 우려했다.

군산시는 "김제 시민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지역의 발생에서 벗어나 새만금 사업의 성공에 3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할 때임을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보건복지부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익산시, 2년 연속 우수자치단체 선정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2,00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실효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 평가업무에 위탁받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학계 등 서면평가를 통해 36개 우수 후보군을 선정하고 8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면 평가(PPT 발표 및 질의응답)를 실시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23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전북에서는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3개 지자체가 대면평가에 참여했으나 익산시가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지켰다.

익산시는 사회적 배려로 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로 희망을 주는 공동체, 가족기능 강화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라는 3가지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2개 세부사업을 통해 36개 우수 후보군을 선정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나눔기부사업, 저출산 고

령화 대비 복지인프라 구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환을 익산시장장은 "재정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욕구를 성실히 반영하고 복지제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과 관이 열정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지자체 포상은 오는 12월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 시상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기동성 우수한 신형 물탱크차 배치

익산소방서, 신형 진압장비 소방용수 6,000ℓ 탑재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웅)는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신형 물탱크차는 모현119안전센터에 배치, 9월 20일부터 운영에 된다"고 밝혔다.

신형 물탱크차는 신형 진압장비와 소방용수 6,000ℓ가 탑재되어 있고, 기존 차량에 비해 기동성이 우수해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에 보다 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소방서 김석웅 서장은 "기존 노후된 차량으로는 신속한 출동과 현장대응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신형 소방차량 배치로 골든타임 확보와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펌프차 및 굴절사다리차, 구급차 등 전북도 소방차량 교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방차량을 보강·배치해 주력 소방차의 노후율을 2017년 도까지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형 물탱크차는 모현119안전센터에 배치, 9월 20일부터 운영해 주력 소방차의 노후율을 2017년 도까지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개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28일 교내 승산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김도중 총장)은 오는 28일 교내 승산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원광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불교사상연구원을 비롯해 원광대 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평생교육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원광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자본주의 시대라는 변화에 발맞추어 원광대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는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학술의 장으로 마련됐다.

'문화자본주의 시대와 원광대학교'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문화자본주의의 시대적 함의를 궁극하고, 향후 대처 방향을 논의하며, 김도중 총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1부 '문화산업과 원광대학교', 2부 '중고·지역 문화산업과 원광대학교'에 이어 3부에서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김도중 총장은 기초강연을 통해 "대학도 이제는 기존 학문연구 기관으로서의 고정된 틀을 과감히 벗어나 문화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산업적 수요에 맞게 탈바꿈하고 기업에 취직하는 인원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창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1,2부를 통해 ▲문화와 경제

의 관계, 그리고 문화자본의 위상(이상호 동국대 교수) ▲문화자본주의 시대와 디지털문화(이남희 원광대 평생교육원장)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과 원광대의 대응 방향(박순태 전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문화자본시대의 창업 동향 및 문화정책 방향(정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현황과 과제(백현기 원광대 창업지원단장) ▲한류문화산업의 발전방향과 익산의 문화산업 전략(원도연 원광대 기업종합지원센터장) ▲원불교의 대중화와 영성콘텐츠 전략(황정연 방송작가)을 비롯해 총 9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원광대 대학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원광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자본주의 시대라는 변화에 발맞추어 원광대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는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학술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1,2부를 통해 ▲문화와 경제의 관계, 그리고 문화자본의 위상(이상호 동국대 교수) ▲문화자본주의 시대와 디지털문화(이남희 원광대 평생교육원장)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과 원광대의 대응 방향(박순태 전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문화자본시대의 창업 동향 및 문화정책 방향(정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현황과 과제(백현기 원광대 창업지원단장) ▲한류문화산업의 발전방향과 익산의 문화산업 전략(원도연 원광대 기업종합지원센터장) ▲원불교의 대중화와 영성콘텐츠 전략(황정연 방송작가)을 비롯해 총 9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농수특산물, '1A 한인축제 엑스포' 참가

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제43회 한인축제'에 참가해 군산 우수 농수특산물 알리기에 나선다.

군산시는 축제기간 동안 흰쌀보리쌀을 비롯한 장류, 젓갈류, 조미김, 한과 등 총 8개 업체 51개 품목을 전시 판매해 한인교포 및 미국인들에게 군산시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들이 대거 방문하는 축제의 현장에서 교포들에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새만금의 도시 군산을 소개하고 발전상을 홍보하며 군산의 위상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문동신 군산시장이 축제에 참석해 미국 한인 농수산물품 수입유망

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축제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 격려와 함께 군산시 농수특산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중렬 군산시 농산물유통과장은 "2009년부터 올해로 8회째 참가하는 LA 한인축제 엑스포 기간 동안 군산시 우수 농수특산물 알리기에 힘쓸 것"이라며 "특히 미국 수입유통사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산시 농수특산물의 본격적인 미국시장 진출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LA 한인축제 엑스포에 참가해 7200만원의 현지 판매와 1억5000만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린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익산시는 도시지역의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산동 월담지구'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와 노후 불량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자리·복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동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올해 2월 익산 동산동 월담지구를 비롯한 울산 동구, 경남 진주, 전남 여수 등 전국 2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동산동 월담지구'는 경사지에 노후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좁은 골목길과 경사가 많아, 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해 재해·안전·위생 등 생활여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새뜰마을사업에는 총사업비 38억원

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집수리 및 공·폐기물 등 주택정비 지원, 재해예방 및 노후위험시설물 보수 등 안전 확보, 소방도로 개설 및 경사지 응급서비스 등 생활인프라 지원 일자리창출 및 복지 등 휴먼케어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 이후 자활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달 초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분야 및 사회경제적분야 관련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8개월 동안 '관' 주도가 아닌 '계회수입' 단계부터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취약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번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해경, 낚시어선 안전관리 총력대응

해경이 바다낚시 성수기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2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건전한 레포츠 문화 정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낚시어선 성수기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대책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과 부안의 경우 바다낚시 메카로 자리 잡아 최근 5년 새 낚시어선 이용객은 4배 가까이 증가해 2011년(6만102명), 2012년(9만1897명), 2013년(10만1834명), 2014년(18만7342명), 2015년(23만1825명)에 이른다.

특히, 군산 남방파제를 중심으로 9월과 10월에는 주꾸미 낚시꾼이 대거 몰리면서 전체 40%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9월말까지 계도와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승선인 명부 부실기재, 영업구역 위반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 행위 등 상습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사고사례와 V-PASS 작동법 교육, 해로드 앱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모두 191척의 낚시어선이 영업 중에 있으며 올해 불법행위로 적발된 낚시어선은 22건 사고는 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진동산업, 저소득층 위해 1,000만원기탁

익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해 준 기업이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유)진동산업(대표 최우진)이 최근 익산시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익산시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최우진 대표는 "이익금을 사회에 환

원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싶어 기탁하게 되었다"며 계속적인 후원의 뜻을 전했다.

최우진 대표는 지난 7월에도 익산시 출산장려사업으로 사용에 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 한 적이 있다.

/익산=정양원기자